후지보 - 직물 순수출의 판매 비율 30% 이상으로 확대

후지보의 방직 사업부에서는 2004년에 초장면 정방 교연사(超長綿精紡交撚絲)를 원사로 한 “토루나솔” 직물을 중심으로 2005년 추동절용 소재부터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수출 전용(專用) 직물을 개발하여 직물의 순수출 판매 비율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방직 영업부 직물과에서는 2004년도에 어느 수준까지 수출을 추진하여 2005년도에는 본 궤도에 올려 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직물 순수출의 판매고 비율은 10%에도 못미치고 있다. 예전에는 한때 50수 브로드(broad) 등의 화섬 직물 수출이 주류를 이루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해외로부터의 공세에 밀려 쇠퇴해 버렸다. 그러나 방직 영업부에서는 “수출이 가능한 소재라면 일본 내에서도 팔릴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2004년부터 다시 순수출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제까지 수출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홍콩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그 중 일부는 미국으로 직접 수출되기도 하였으며, 홍콩으로 수출된 직물은 아시아에서 봉제되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토루나솔” 직물은 페루(Peru)에서 생산된 수피마(Supima) 면으로 뽑은 90수 쌍사(雙絲)급이나 103수 쌍사급 원사로 짠 평직물이나 능직물, 도비 직물들이다. 직물의 태가 소프트하고 광택이 좋으며, 높은 흡습성에 슬럽이 없고 드레이프성 등이 뛰어나게 좋다.

이 직물은 일본 내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추동절용 직물의

출하량이 2002년과 비교하여 20~30% 증가하여 20만m가 넘었다. 2004년도에는 판매량이 더욱 증가하여 60만m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루나솔” 직물의 수출은 재킷, 팬츠 등의 중간 두께 소재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후지보는 “고야마(小山)” 공장의 가공 기술을 살려 특화된 소재도 개발하고 있다.♣